

2007 **희·망·도·약**

‘신재생 에너지 연구’ 문채주 목포대 교수

전남을 태양광·풍력 발전 메카로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목하는 교수가 있다. 문채주(50)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그는 최전선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첨병’이다.

문 교수는 2007년 전남도와 함께 남악 신도시에 ‘썬 시티’(Sun City)를 건설한다. 신안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 신재생에너지 중 최고 효율을 자랑하는 조류발전소 건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목포대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는 지난 2004년 4월1일 산업자원

이다.

문 교수는 또 올해 신안 자은도에 1MW급 풍력발전기 3기를 건설한다. 높이 80m·날개 길이 40m인 이 발전기는 1분에 최고 10~15바퀴를 회전하며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최근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며 집단 민원을 내 공사가 잠시 중단됐지만, 위치를 옮겨 조만간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

문 교수는 조류발전소를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진도 울돌목에 이미 1천kW급 시험 발전소를 세웠지만, 문 교수는 완도



문채주 교수가 목포대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 옥상에 있는 풍력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목포=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술연구센터 현장실습소가 건설된다. 실험소가 완성되면 문 교수와 연구원들은 보다 활발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것이다.

문 교수는 “연구센터의 태양광

기술 수준은 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거의 대등하다”면서 “풍력과 조류, 바이오메스 분야도 조만간 세계 최고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남악 ‘썬 시티’·신안 풍력발전 건설 수소 버스 개발...곧 도심 질주할 듯

부의 지원을 받아 힘차게 문을 열었다. 기후변화협약, 도쿄의정서 발효, 유가 폭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연구원은 문 교수를 비롯한 5명의 교수와 25명의 전기공학과 대학원생이 전부. 하지만 이들은 200만 도민들이 허를 내두를 만한 일을 척척 해내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해 말 남악 신도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550세대에 110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했다. 낮에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에너지를 한전에 보내고 밤에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입주자들은 한 달에 1만원 가까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문 교수 등은 오는 2010년까지 남악 신도시와 목포 옥암지구 등 1만5천여세대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

을 기간수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횡간수도의 유속은 초속 4~5노트(Knot·7.2~9km)로 울돌목보다 느리지만, 유량이 많아 에너지 생산이 보다 용이하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미 영국 ‘루나’(Lunar)사와 발전소 설계를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말에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 에너지 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문 교수는 수소를 이용한 노트북 충전기를 연구 중이며, 수소 버스도 조만간 개발할 계획이다. 문 교수는 머지 않아 남악 신도시 한가운데 수소 충전소가 생기고, 수소 버스가 도심을 질주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 무안공항 인근 해안에는 640평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백양사 ‘내장산 국립공원 해제 결의’ 파장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로 국립공원내 사찰문화재 관람료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장성 백양사가 내장산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양사는 “지난 7일 항적전에서 열린 총림 임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종교활동

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사찰소유지의 해제를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백양사 측은 결의사항을 통해 “불교계의 동의 없이 내장산내에 있는 백양사 사찰 토지와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일방적인 국립공원 지정은 당연히 해제돼야 한다”며 “사찰 지역의

보호를 위해 ‘백암산 역사자연문화유산지구’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공원 대부분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오랜 세월 같이 해온 불교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관람료는 가치 있는 것들

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비다”고 주장했다.

백양사는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 내 사찰들과 연계해 국회에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를 청원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국립공원을 지정·해제하는 문제는 환경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백양사의 경우는 국립공원에서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민기자 jbg@kwangju.co.kr

장흥댐 상류 납골당 허가 수질오염 논란

시행과정 마찰 클 듯

전남도가 장흥댐 상류지역인 영암군 금정면에 대규모 납골당 설립을 허가해 수질오염 논란이 일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클 것으로 보인다.

9일 장흥군과 수자원공사 장흥댐 건설단에 따르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탐진강 상류지역인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산 417-4번지 일대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한 영암군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Y베를공원재단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원고 측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납골당 신고부지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인근주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반려한 영암군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원고인 Y재단의 손을 들어 줬다.

영암군과 장흥군 등은 그러나 장흥댐 상류에 납골당 등 장례문화체험장이 조성되면 수자원공사가 ‘친환경 정정댐’으로 시범 건설한 장흥댐의 수질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데다 댐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장흥군 등은 전남도가 지난 2005년 9월 사업자 측에 ‘재단설립 인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댐 이미지 하락 등에 대해 자신들과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납골당 부지 인근 유역의 물이 장흥댐이 아닌 나주댐으로 흘러가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Y재단은 총 20만 평에 장례문화역사전시관 및 납골당과 수목장(12만 5천평), 장례문화체험장(4만 5천평), 레저(골프·승마장) 및 컨벤션시설(3만 평)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홍=김용기기자 kykim@

‘反 FTA’ 폭력시위 주도 3명 3년 구형

지난해 11월 광주시 청사 앞에서 반(反) FTA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주동자들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오현철 공판부 검사는 9일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FTA 반대시위를 주도하며 폭력을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봉광·주남연·김우현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시위 과정에서 전·의경 38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대의원 김모씨(30)와 노조원 김모씨(38)에 대해서는 나란히 징역 3년이 구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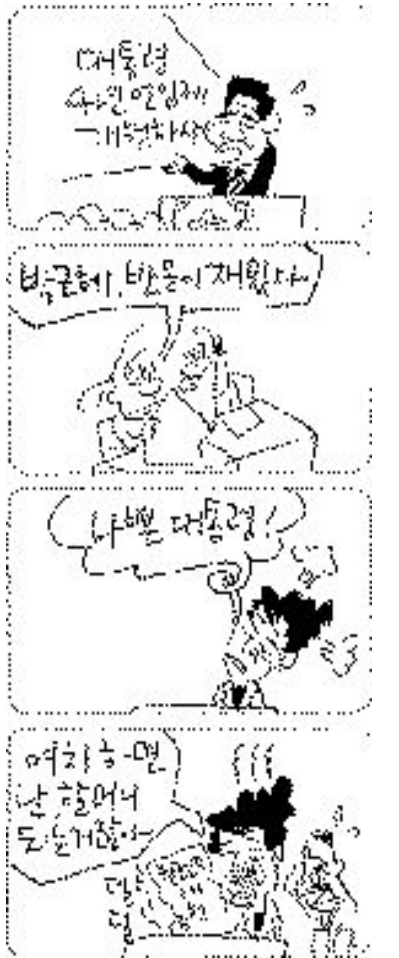
오검사는 이와함께 가두행진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킨 혐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봉광·주남연·김우현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오 검사는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중)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반미FTA 반대 입장 전담단체 사무처장 위도(4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시위 과정에서 전·의경 38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대의원 김모씨(30)와 노조원 김모씨(38)에 대해서는 나란히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024) 김장동



광주광역시 중구 중림동 1가 11-1번지 1층
수원신도시 피오레
문의: 062-367-9000

도박사이트 운영 5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대만에 서버를 마련하고 30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달러비 명목으로 1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권모(40)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

장난으로 던진 벽돌 맞아 40대 숨져

○중학생 2명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장난으로 던진 벽돌에 맞고 두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희생.

○9일 서울 양천경찰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4시께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모 아파트 앞을 걸어가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김모(13)군과 이모(12)군이 던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는 것.

○김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옥상에 있던 벽돌을 던졌지만, 사람이 맞을 줄은 몰랐다”며 후회했는데, 유족들은 “철없는 장난에 가장을 잃었다”며 울었다.

/연합뉴스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